

# 2020년도 대학 암호 동아리 지원 사업 후기

2020년 10월 26일 QuantumAnt 장경배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도 저희는 서화정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한국암호포럼에서 지원하는 암호 동아리 지원 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계획을 상세히 적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선정되었고, 그 결과 2019년도에는 우수, 2020년도에는 최우수 동아리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우선 최고의 지도 교수님 그리고 우수한 팀장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 사업에 선정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쿼텀앤티의 동아리원이 된다면 제일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학술대회나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추천해 주십니다. 저의 경우, 학교를 다니면서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논문은 저와 거리가 먼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논문을 처음 써 보았지만 쿼텀앤티에서는 교수님 및 동아리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부생도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학생일수록 주어진 기회를 100퍼센트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안 전문가의 강연도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작년에는 다양한 오프라인 보안 워크샵에 참가하였고, 이번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규모 오프라인 워크샵들이 취소되어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직접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보안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금 300만원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학술대회, 보안 워크샵에 지원금을 사용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서적,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 싶은 학생들은 동아리 장에게 문의하면 지원금을 사용하여 구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회식비용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아리원이 꽤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재정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학교들이 지원 사업에 선정됩니다. 2019년에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들이 대규모 워크샵에서 만나 서로 발표도하고 회식자리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여러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때 서울대 학생들이 연구하는 것을 보고 서울대 학생들은 뭔가 다르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워크숍은 진행되지 않았고, 발표자 1명만 중간발표만 간단히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고 최종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발표 때 비가 오던 날 제가 우산이 없었는데 국민대 학생이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같이 전철역까지 가며 동아리 및 연구실 얘기도 나누며 번호도 교환하는 따뜻한 경험을 하였고 최종발표 때에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쿼텀앤티가 2019년 우수, 2020년도 최우수 동아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피드백을 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열심히 활동해주신 동아리원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